

날씨가 쌀쌀해지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교통요금인상을 필두로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택시비와 담배값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대한 물가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올해 서민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겨울의 불청객 '물가 인상'

이 초래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물값이 비싸지니 종전만큼 구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구매력이 떨어지면 공장에 재고가 쌓이게 되고 생산이 줄어 고용조정을 해야 한다. 자연히 실업률도 올라가게 된다. 경제는 침체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에 대한 인상소식은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인상은 주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된다. 먼저 공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중동국가간에 문제가 생겨 원유가가 인상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제품생산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것을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한편,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시중에 통화량을 늘릴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급적 요인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원유가의 인상으로 휘발유값이 올라가 교통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하고 그 선택력이 약하다.

각종 요금인상으로 가장 타격받는 계층은 주로 서민층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부담 중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과격함 요금이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각 단체들의 목소리도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요금이나 임금의 인상은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또 다시 물가의 상승은 요금이나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되풀이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을 격정하는 서민 결에는 더욱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다. 정부의 손길만으로는 이들의 추위를 녹이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소식에 가슴이 아프다가도 선물을 베푸는 소식이 흐트러지곤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심시일반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올해는 더 많은 불자들이 나타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시와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복덕이 충만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균종특별교구가 '군포교 비전21'을 발표하면서 군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섰다. 스님들이 군을 대상으로 본격적 포교활동을 시작한지 37주년이 되는 11월 30일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다.

군포교 자체 역량 강화, 전 불교적 지원 시스템 확충, 조직적 군포교 시스템 확립, 계층별 군포교 관리 시스템 도입, 군승 활동 관리체계 확립, 포교성과의 범불교적 확산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한때 군승단이라던 불교계의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지난 37년간 군과 우리사회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아직까지 불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타종교 군포교와의 비교, 포교의 적극성 문제, 군승 수급의 문제 그리고 군승단에서 일어났던 일각간의 잡음들이 그것이다.

군포교 비전... '함께 젊어지자'

그런 가운데 군불교위원회가 균종특별교구로 바뀌면서 군포교에 변화가 예상되던 터에 나온 균종특별교구의 '비전 21' 발표는 새로운 기대를 안겨 준다.

1만 명 회원이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토록 하는 '만인동참회' 출범은 운영의 모미만 잘 살리면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군부대와 일반 사찰과의 자매결연 사업도 현실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이라는 첫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20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심성이 깊어지고 종교적 가르침에 귀를 열게 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또 군에서의 불교인원이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종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군포교가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불교계로서는 거사불교의 기반이 되는 큰 뒷받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신세대의 감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군승의 감성과 능력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군종교구의 새로운 다짐도 중요하지만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정자(법랍나스트)**

특별기고

전통사찰 보존, 포괄적인 점검과 준비 필요

이병인(밀양대학교 환경공학학과 교수)



그간 불교계와 정부관련 기관이 협의 하에 온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대불교 554호 2면 기사 참조). 전통사찰의 유형적 관리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은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과 보존위원회 설치·지정취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했으며 이에따라 새로운 사찰환경(寺刹環境)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법적인 정비 시작되고 있다.

오랜만에 종단차원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현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정비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대의 정토(淨土)인 청정한 도량을 유지하고 관리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가 우선은 내부적 불사(佛事)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과 정비문제이다. 외부적 불사와 통제에만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관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종단에서도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찰내의 내부적 불사에 대해서도 심의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일어나는 사찰의 무분별한 관리로 인한 문제는 전적으로 불교계 내부의 사부대중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사찰내부의 이기주의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익과 공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진행시켜나가기야 한다. 그러기에 불사심의위원회가 단순히 불사를 추진하고, 형식적인 통과절차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엄정하게 운영되어 과거의 유산자원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이 시대의 진정한 유산자원을 남기도록 함으로서 이 시대 불사의 바람직한 전통과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불사 심의 · 관련법 개정 · 환경평가 뒤따라야

불교계 · 국가기관 호흡 맞추기도 중요

둘째는 최근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실질적인 법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사법뿐만 아니라, 유관된 관련법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중의 하나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것이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지정내역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지금과 같이 개발우주의 관행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과연 얼마만큼

의 관심을 가지고 보존구역을 지정하겠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모든 사찰에 대하여 보존구역의 지정 및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다. 현실적으로 전통사찰의 관리

를 위한 최중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전체적인 윤곽과 역할을 기술하였을 뿐이기에,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외형만 갖춰놓고 실질적인 운용의 미비 등으로 사찰환경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정된 환경성 검토사항과 사전협의문제이다. 가능한 환경성 검토의 초기단계이전에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 불교관련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고, 더불어 개발시 보호지역에 대한 사전협의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

향평가법규정에서도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개발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 사전협의나 고려가 없었으며, 사후에 협의하려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아직 불교계 내부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불교계 내부의 전문인력을 직접 배치고, 양성하여 조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점은 우선적으로는 각 사회 각 전문분야에 대한 기존의 전문가그룹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키워가고, 종무원 등 재가자들에게 전문성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분명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큰 진보이다. 그것은 또한 이 시대의 유산자원을 온전하게 보존시켜가는 활동이므로 이제 불교계내부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적이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명분과 당위성을 갖는 일이므로 대내외적으로 적극홍보하고 장려하여 우리의 청정도량이 삼세(三世)의 진정한 유산(遺産)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圓鑑 釋解空 門徒會

모임공고

귀의삼보하옵시고,
圓鑑(원감) 釋解空(석해공) 門徒會(문도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문도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49(2005)년 12월 29일 오전11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 총회사 ☎ 054)338-8196

성석현(大聖) 김진수(大顯) 맹일균(大行) 조동국(大融) 김종권(大松) 문중호(大弘)
 황태식(大宙) 신관우(普覺) 정낙수(大月) 신경철(大興) 김민규(大雄) 조평재(正目)
 차일환(大國) 이록희(大愚) 도현숙(正妙) 김명철(能仁) 정재환(大目) 김수열(正休)
 이수진(正心) 윤정희(大湖) 장일상(大印) 홍동완(正覺) 장경희(正目) 최영복(青谷)
 김점돌(大光) 남성희(瑞明) 박용준(大覺) 박형규(大休) 김대선(正觀)
 전봉선(瑞雲) 장인구(大輪) 하승배(大悟) 김상선(大靜) 박주미(正悟) 김동현(吉祥)
 공상웅(大明) 송명섭(正道) 허정희(正大) 김인구(靑潭) 정준근(大默) 정성재(正眼)
 배전국(大藏) 진순남(大峯) 지일수(開默) 김종록(正印) 전용식(大宗) 이운영(大天)
 김만현(正默) 권수태(正行) 남우식(雲覺) 강경례(正圓) 김경현(默潭) 김용묵(三輪)
 강춘수(主山) 안봉근(能觀) 이수진(大岩) 조용찬(大鏡) 박우상(大觀) 이종일(能覺)
 정태화(法修) 강춘수(主山) 김주섭(如山) 황정호(白雲) 최응백(道器)

圓鑑 釋解空 門徒會 門徒代表 : 默潭 合掌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인사말씀 (불기2549년 11월 30일 창종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하신 전 종도 및 사부대중과 내빈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불기 2532년(서기 1989년) 11월 30일에 중현인 현장을 선포하고서 한국불교법륜종을 창종하여 시대에 적응하는 교단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지 벌써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돌이켜 보면 시련과 고난의 역경을 견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협력해서 모든 갈등과 이기심을 타파하고 장애에 한국불교에 우뚝선 종단으로서 손꼽히고 모범적 종단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종도 모두는 손에 손을 맞잡고 단결된 힘이 결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종도 사부대중께서는 서로 아끼고 협력하여야만 합니다. 이렇듯 종단의 발전과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여야 하므로 다소의 희생이 뒤따라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에게 인내와 이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누구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새 길을 다져가기 위함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종단의 기틀이 다져지고 종지종풍이 바로 서게 될다면 우리 법륜종은 앞날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의 새벽이 밝아 올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번영의 물결 속에서 다함께 반야의 배를 띄울 것을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종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총무원장 탄공 합장

법어
 扶宗樹教十七年，以培其根達其枝
 法輪瑞花無根蒂，不待春功色自鮮

法輪宗風法香起，引得宗僧到處集
 猶如春歸上苑時，鮮艷蔓滿荔枝

一堆紅焰巨清空，不問金銑銅鑿堅
 入裏盡教成水去，箇中非正亦非偏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
 주소 :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0-6호 전화 : 032)822-5371 / 팩스 : 032)822-5373